

【일반논문】

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Sporting women)’의 등장과 의미

: 1950-60년대 북한 여성 전문체육을 중심으로*

이나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국문요약

남성 중심의 활동인 근대 체육은 여성이 체육활동에 있어 주변적 존재로 위치하게 했다. 또한 자본주의 체육이 상업화되고 미디어와 체육의 결합이 상업화를 가속화 시키면서 체육현장 내 젠더위계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 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은 주변화되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후 1950-60년대 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이 처음 등장하는 배경과 이들에 대한 담론을 살펴본다.

사회주의 체육의 주요 목표는 인민의 체위를 향상함으로써 노동생산력을 높이고 국방력을 보장하는 데에 있었고 이것이 사회주의 여성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였다. 북한의 체육 역시 소련의 체육정책을 도입하여 성별을 떠나 개인의 위생과 건강, 집단을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체육활동을 권장했다. 교육기회의 제공과 각 집단 별로 진행되는 체육활동을 통해 북한의 운동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50-60년대 역동적인 북한 사회 내부에서 강한 신체를 토대로 개별 능력을 계발하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운동하는 여성들은 북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모델로 등장했고 이들은 천

* 이 글은 필자의 「2019 북한연구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2019.10.11,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발표한 “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Sporting women)’의 등장과 의미: 1950-60년대 북한 여성 전문체육을 중심으로” 논문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한 논문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리미운동의 상징이자 ‘발전하는 여성’의 표본으로 담론화되었다. 북한의 매체에서 재현되는 운동하는 여성들의 강한 신체가 ‘여성답지 못한’ 혹은 ‘남성적인’ 신체로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맥락 속에서 섹슈얼한 여성의 몸 대신 집단을 위한 튼튼한 몸의 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운동하는 여성, 북한체육, 북한 여성체육, 전문체육, 엘리트스포츠, 사회주의체육

I. 문제 제기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유도 48kg 결승경기에서 국제경기에 처음 참가하는 무명의 유도선수가 유력한 우승 후보자였던 다무라 료코(田村亮子)를 꺾고 금메달을 수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선수가 바로 북한 체육¹⁾선수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계순희다. 계순희는 이후 아시안게임과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어 북한의 ‘유도여왕’으로 칭송받았고 인민체육인과 노력영웅 칭호에 이어 김일성상 수상자가 되었다. 계순희 외에도 체육선수 최초로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은 정성옥은 199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톤 결승선을 끊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화제가 되었다. 언급한 두 선수를 제외하고도 축구, 탁구, 역도 등의 종목에서 북한의 여성선수들은 꾸준히 우

1) 체육과 스포츠는 용어의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체육은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시키는 활동부터 신체의 발육을 위한 교육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는 구체적인 운동경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정 규칙에 따라 개인 혹은 단체가 기록을 겨루는 활동으로 체육에 비해 협소한 개념을 띠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체육과 스포츠의 명확한 의미구분을 따르지 않고 대중체육과 전문체육 등 체육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북한의 상황을 적시할 경우 체육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불가피하게 체육과 스포츠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는 본래의 용례를 따라 혼용하도록 한다.

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의 여성 선수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성과가 이질적인 문화현상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기존에 구성된 사회적인 인식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일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성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재(實在)로 여성선수들을 평가하기도 한다. 여성이 경기수행능력을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고 '국민영웅'으로 불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학교 체육교육을 비롯하여 레저 스포츠 및 경기스포츠 등 현재 대중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의 형태는 근대의 산물이다. 영국에서는 제국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한 식민지 경영의 모범적 남성인 신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체육교육이 활용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중 유럽 각지에서는 군대 내 체육을 통해 병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체 양성의 수단으로 삼았다. 즉, 근대 체육이란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남성의 활동이었다. 체육 및 스포츠가 추구하는 남성적 특징으로 인해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는 주변적이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올림픽에서 여성이 출전할 수 있는 경기 종목은 생각보다 더 적었다. 여자 유도경기가 올림픽에 진입한 것이 1992년이었으니 말이다. 여성들은 주로 관람자의 역할에 놓여있었고 프로 스포츠의 도입 이후 흥미요소의 일환인 응원단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향은 매체의 발달에 의한 '보는 스포츠'의 흥행으로 더욱 강해졌다.

현대 체육은 미디어와의 연결고리가 공고하다. 미디어는 체육계를 비롯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젠더와 젠더간의 차이, 젠더 위계에 대한 가치와 믿음을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체육 역시 젠더 렌즈를 통해 대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여성체육이 상업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해온 과정은 미디어가 이성애 중심의 젠더 바이어스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²⁾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특징을 제쳐두고 여성이 전문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의 장벽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를 기획하고 제도화하는 권력의 대다수는 여전히 남성들의 몫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여성과 남성의 경기수행력은 신체적 차이를 넘어 평균분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지만 스포츠 내 여전히 남성중심의 권력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한 북한에서는 어떠한 것인가. 운동하는 여성³⁾은 주변적 여성이었을까. 대중적 인기와 밀접하게 결부된 현대 스포츠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운동하는 여성들이 성적대상화되고 주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혹은 운동하는 여성이 여성의 다양성을 드러내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가. 운동하는 여성이 북한 사회 내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활발하던 시

2) 여성스포츠에 대한 미국 미디어 보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여성선수에 대한 미디어 재현이 여성선수와 여성스포츠가 그들의 스포츠 참여에 상응하는 뉴스 보도를 받지 못하는 과소평가(underrepresentation); 여성 운동선수들의 제한된 취재가 그들을 열등한 운동선수로 묘사하거나 그들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사소화(trivialization); 여성 선수들이, 특히 이성에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묘사되는 대상화(objectification); 여성선수의 섹슈얼리티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혐오(homophobia); 여성으로서 여성성의 상실 혹은 스포츠 실패가 강조되는 비극으로서의 여성 스포츠 참여; 성공한 여성 선수들을 여성성의 실패로 그리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 여성 선수들에 대한 언론의 묘사가 엇갈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양면성(ambivalence) 등의 일곱 가지 형태가 이미지와 보도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Elizabeth Arveda Kissing, "When Being Female Isn't Feminine: Uta Pippig and the Menstrual Communication Taboo in Sports Journalism" *Sociology of Sport Journal*, vol. 16 iss. 2 (1999), pp. 80-81.

3) 운동하는 여성(sporting women)의 범주는 광범위하다. 직업선수를 비롯하여 여러 이유로 다양한 체육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을 아우를 수 있다. 이 글에서 운동하는 여성은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의 담론에서 적극 재현되는 여성들이 주로 전문선수들임을 감안하여 여성선수들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기 이들 여성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미디어의 담론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회주의 체육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주의 여성 주체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문제의식도 여기에 있다.

여성체육에 대한 연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운동의 발전을 위해 2014년 발표한 '올림픽 아젠다 2020 (Olympic Agenda 2020)'에는 성평등 실천을 위해 여성 종목과 혼성경기를 늘리는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IOC의 움직임과 더불어 체육 참여를 요구하는 대중의 다양한 목소리는 여성체육에 대한 관심을 연구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다움을 수행하는 것에 운동선수라는 직업이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정체성을 비롯한 운동하는 여성의 신체를 마이클 메스너(Michael A. Messner)의 표현처럼 '경합하는 이데올로기의 지형(contested ideological terrain)'으로서의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⁴⁾ 그러나 일부 연구는 남성 종목을 하는 여자 선수들이 겪는 젠더 정체성의 갈등을 '문제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이들이 겪는 정체성 갈등이 "그릇된 성 정체성"으로 나아가지 않게 관리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존재하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에 대한 배타적 인식 및 전통적 젠더 역할을 여성이 수행

4) 권기남·권순용, "여자축구선수들의 성 정체성 갈등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3호 (2012); 박성희 외, "여성스포츠 선수에 대한 미디어 보도 프레임: 성 역할 고정관념과 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3호 (2015); 이규일·임영신, "남성 지배적 스포츠 문화 속에서 여자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갈등,"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5권 1호 (2011); 이원미·이종영, "여성 운동선수의 성역할 갈등이 객체화된 신체의식 및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1권 1호 (2013); 이정래·권기남, "여성 보디빌딩 현장의 변화와 선수의 정체성 지키기,"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9권 1호 (2015) 외 다수가 있다.

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다.⁵⁾

그러나 남한의 여성체육 연구의 성과가 조금씩 축적되는 것에 비해, 북한 여성체육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정우는 북한의 출판매체에 실린 여자권투선수 보도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여성해방보다 민족주의적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⁶⁾ 2000년대 북한 여성선수 신체에서 경합하는 이데올로기 지형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정우의 연구에서 확인 가능한 현재의 북한 여성선수가 민족주의 담지자로서 북한 권력이 지향하는 바를 재현하는 주체로 거듭나기 이전의 맥락을 살핀다.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한 북한은 6.25전쟁 이후 국가를 재정비하는 기간 동안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힘을 기울였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배체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1950년대와 60년대 북한 사회는 그 어느 시기보다 역동적이었다. 이 시기 북한 여성들 역시 사회주의적 개조의 대상으로 노동계급화 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받았던 시기로 여성 담론이 활발하게 생산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다양한 북한 여성의 형태로서의 운동하는 여성의 출발점을 확인하기 적합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먼저 북한의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의 몸과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1950-60년대 북한 출판물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시기 북한 여성선수들에 관한 담론을 확인한다. 이후 사회주의 건설시기 북한 여성선수들이 운동하는 여성의 해방된 몸을 전시하고 기록을 경쟁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5) 황성하, “여자축구 선수의 성 역할 갈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5권 1호 (2016).

6) 이정우, “북한 출판미디어의 여성 권투선수 보도에 내포된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2권 1호 (2009).

II.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

1.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의 시각

여성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제시되곤 했다. 재생산을 위한 풍만한 몸의 여성이 미인으로 칭송받는 시기가 있었던 반면 현대로 오면서 날씬하고 가는 몸의 여성이 미인의 전형으로 되고 있다. 날씬한 몸을 지향하기 위해 몸의 전시가 일인 모델들은 섭식장애를 겪으면서까지 끊임없이 더 마른 몸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대중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바디쉐이밍(body shaming)으로 인해 여성들은 스스로의 몸을 지속적으로 혐오하고 비판하면서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여성들의 몸처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노력은 누군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자기관리라는 개인적 영역에 놓이게 된다. 푸코(Michel Foucault)의 해석에 따르자면 여성의 몸은 가부장제의 권력이 작동하는 유순한 몸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제는 형태에서 몸짓이나 동작으로 확장된다. 아이리스 영(Iris Young)은 여성은 스스로가 일정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는 상상과 함께 그 공간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기를 주저한다고 언급했다. 일상 속 제스처의 범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운동성과 공간성의 표현이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에 의해 ‘여성적’인 행동양식을 취한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경향은 여성들의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7) Iris Marion Young, “Throwing Like a Girl: A Phenomenology of Feminine Body Comportment, Motility and Spatiality,” *Human Studies*, vol. 3 (1980), pp. 137~156.

체육활동에서 선호하는 신체는 잘 발달된 근육으로 형성된 다부진 몸과 강하고 공격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몸은 이상적인 남성의 몸과 일치한다. 언급한 특성을 가진 남성의 몸은 남성성과 인기의 상징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몸은 열등함의 표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연관되어 힘이 없고 가녀린 몸은 여성의 몸을 떠올리기 때문에 여성의 몸 역시 열등함으로 간주되었다. 남성 권력의 우월함을 표면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신체의 열등함이 지속되어야 했고 이러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여성의 몸은 남성 권력구조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운동을 통해 단련되는 여성의 신체는 여성적이지 않은 것이자 여성임을 포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시각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도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그리고 운동하는 여성이 여성적이지 않다는 선입견은 현재까지도 미디어 보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⁸⁾

따라서 ‘여성적’이어야 하는 여성의 몸이 다양한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신체와 정신, 자연과 문화, 감정과 이성의 연장선에서 여성과 남성을 이해하려 했던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했다. 의복과 체형, 표정과 행동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여성성의 규범을 학습하기 때문에⁹⁾ 여성이 동질적 집

8) 서구사회의 문화는 여성을 신체, 자연, 감정, 사적인 존재로 관련시켜 남성을 보다 가치 있는 정신, 문화, 이성, 공적으로 관련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을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신체 속에 집어넣었다. (중략) 성별상의 차이를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가장 영향력 있는 형태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이며 미디어는 남녀 경기자의 차이를 ‘자연화’하기 위해 작용하여 왔다. M. Ann Hall 저, 이혜숙·황의룡 역, 『페미니즘 그리고 스포츠신체』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p. 110.

9) 수잔 보르도, 조애리 윌킨,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 케티 콘보이 외, 고경하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p. 124.

단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복과 체형, 행동을 하는 여성 이미지가 요구된다. 운동하는 여성은 여성 집단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적합하다. 여성의 신체활동이 사회가 요구하는 몸을 만들기 위한 타의적인 실천을 뛰어 넘어서 여성들이 신체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로 인한 자신감과 자존감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⁰⁾

2. 사회주의 국가의 운동하는 여성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은 남성보다 신체적 조건이 뒤떨어지는 여성은 체육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기존의 관습적 사고를 뒤엎는 직접적인 계기였다. 소련의 올림픽 첫 출전이었고 소련이 획득한 71개의 메달 중 여성선수들이 24개를 획득하여 뛰어난 기량을 펼쳤다. 이후 올림픽에서 동독을 위시한 동구권 여성선수들의 활약도 꾸준히 이어졌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소련 여성선수는 소련선수단의 35%, 동독의 여성선수는 동독선수단의 40%를 구성하였는데 소련 여성선수들은 125개 메달 중 36개, 동독 여성선수들은 동독이 획득한 금, 은메달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다. 심지어 1976년 동계올림픽에서는 소련과 동독의 여성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이 미국, 영국, 서독과 프랑스의 여성선수들의 메달을 다 합친 것의 두 배 이상이었다.¹¹⁾

올림픽에 출전한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선수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과 다름없었다. 오랜 시간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축적되어 온 관습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재현해 온 각종 매체를 통한 시각화로 여성의

¹⁰⁾ Ann Hall, 『페미니즘 그리고 스포츠신체』, pp. 124~125.

¹¹⁾ Jim Riordan, "The Rise, Fall and Rebirth of Sporting Women in Russia and the USSR," *Journal of Sport History*, vol. 18, no. 1 (Spring 1991), p. 194.

신체가 규정되어 온 것에 여성 운동선수들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실제 소련의 체조선수였던 올가 코르부트(Ольга Валентиновна Корбут)와 넬리 킴(Нелли Владимировна Ким)은 서구 국가의 어린 여성들이 체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니나 포노마료바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소련의 높이뛰기 선수 타마라 비코바(Тамара Владимировна Быкова) 등 사회주의권의 육상선수들의 강한 신체는 남성들이 ‘이상적인 여성’으로 규정하는 순종적이고 연약한 몸을 가진 여성에 대한 환상을 깨기도 했다.¹²⁾ 여성의 신체와 행동에 부여된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고 다양한 여성의 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주의의 또 다른 혁명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도 출산에 적합한 몸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여겨졌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중간계급 이상 여성들의 목표로 간주되면서 그런 배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남성의 선택을 받는 것이 여성들의 관심이어야 했다. 땀을 흘리며 격렬한 신체 접촉을 동반하는 거친 활동은 남성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여성체육은 그다지 권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체육 참여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확대되고 있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당시 사회진화론의 보급과 유럽 내 파시즘 확산의 영향으로 강하고 건강한 여성의 신체 발전이 국가적 건강 및 국력과 연관되어 여성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¹³⁾ 미국에서도 농구를 비롯하여 양궁, 야구, 조정과 테니스 및 육상경기가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1901년 미국의 한 잡지의 글에는 여성이 체육영역에 진입한 것이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까지 언급되기도 했다.¹⁴⁾

12) Ibid. p. 195.

13) Jennifer Hargreaves, *Sporting females: Critical issues in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women's sports* (London: Routledge, 1994), p. 137.

한편, 늘어나는 여성들의 체육 참여에 맞서 운동하는 여성을 상대하는 남성의 전략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운동하는 여성의 몸이 여성들의 건강과 즐거움,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기쁨을 위한 섹시하고 로맨틱한 몸을 만드는 것으로 재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성들의 전략은 잡지에 실리는 운동하는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휘날리며 탄탄한 몸을 내보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었다.¹⁵⁾

남성과 연관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한정되어 추구되어온 여성 신체의 단적인 예시는 아래에 제시할 <그림 1>의 이미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1952년 당시 여성 운동선수와 일반적인 여성 이미지



출처: “1952 Olympics, the women’s history,” May 21, 2016, *On Her Mark Collectibles blog*; <<https://www.onhermark.com/single-post/2016/05/20/1952-Olympics-the-womens-history>> (왼쪽); “What Happened in 1952 Important News and Events, Key Technology and Popular Culture,” *The People History*; <<http://www.thepeoplehistory.com/1952.html>> (오른쪽).

¹⁴⁾ Mariah Burton Nelson, “Introduction: Who We Might Become,” in Lissa Smith, *Nike Is a Goddess: The History of Women in Sports*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88), pp. xii i, xi v.

¹⁵⁾ *Ibid.* p. xi v.

〈그림 1〉은 1952년 당시 상반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왼쪽 사진의 원반던지기 선수는 니나 포노마료바(Нина Аполлон овна Пономарёва)로 헬싱키 하계올림픽에 출전하여 소련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된 인물이다. 잘 발달된 어깨 및 하체 근육과 두꺼운 몸통은 육상선수로서 경기수행에 적합한 신체능력을 전시하고 있다. 이와 상반되는 오른쪽의 사진은 당시 북미 여성들의 유행하는 옷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단정히 정리된 헤어스타일에 가는 허리를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풍만해 보이는 가슴과 둔부가 돋보이도록 여성 신체의 곡선미를 극대화하는 것이 인기였음을 알 수 있다. 포노마료바가 가진 근육질의 몸은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구성된 서구 사회의 여성의 신체 지향성과는 격차가 있었고 따라서 포노마료바가 ‘여자답지 않은’ 몸을 가진 ‘남자다운’ 사람으로 평가되었을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의 신체는 성별의 차이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동등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인민으로서의 의무가 더 강조되었다. 특히 기존의 이분법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입하면서 정신과 신체의 우열을 가리기보다 자본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로 우열을 나누어 사회주의적 신체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다.¹⁶⁾ 짐 리오단(Jim Riordan)은 소련에서 여성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된 이유를 이념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여성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각성된 노동자로 만든다는 것과 탱크나 전투기 조종사, 선장 등의 힘든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국내외에서 남성들과 함께 경쟁하는 해방된 여성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¹⁶⁾ Libora Oattes-Indruchová, “The Ideology of the Genderless Sporting Body: Reflections on the Czech State-Socialist Concept of Physical Culture,” Naomi Segal, Roger Cook, and Lib Taylor, *Indeterminate Bod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3), p. 53.

이었다. 공적영역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신체적 활력은 소련 내의 많은 여성들에게 역할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를 한다고 믿었다.¹⁷⁾ 소련의 여성 체육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시각은 사회주의 국가들로 전파되었고 북한 역시 사회주의적 체육의 특성이 도입되었다.

Ⅲ. 사회주의 건설시기 북한 내 ‘운동하는 여성’ 담론

1. 새로운 사회 질서와 전쟁이 제공한 여성체육 발전 기회

사회주의 체육의 목표는 노동과 국방을 위한 건강한 인민의 몸을 양성하는 데 있다.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혁명에 투신할 인민을 양성하는 데서 성별의 생물학적 차이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해방 이후 상이한 체제를 지향하면서 북한 권력은 정치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이전 사회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민주 개혁조치를 시행하면서 약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여성들의 지위에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노동법령」과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념을 체현할 신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은 전 인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노동력을 가진 청장년층의 건강이 생산력을 높이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인민체력검정도 도입되었다. 인민의 신체 발달과 능력 계발을 위한 체육사업은 교육기관과

17) Jim Riordan, "The Rise, Fall and Rebirth of Sporting Women in Russia and the USSR," p. 198.

직장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민주청년동맹이 체육사업을 담당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된 어린 여학생부터 직업여성까지 체육에 참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¹⁸⁾ 이는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여학교 교육 혜택을 받은 소수 여성들에 국한되었던 여성체육이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¹⁹⁾

18) 한반도에서 여성체육의 시작은 개화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에서 건너 온 영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근대 교육기관을 통해 체육교육이 시작되었다. 체조와 함께 초기에 보급된 육상경기는 운동회를 통해 대중화되었고 여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체조 수업과 육상경기는 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다. 맨발을 내어놓는 것조차 천박하게 여겨던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다니던 양가의 규수들이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고 팔다리를 짝짝 뺨는 체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 하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던 여성체육은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 신체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약이 존재하는 일본 문화 내에서 운동하는 여성은 역시 크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일본의 이 같은 여성 신체에 대한 인식은 조선교육령을 통해 조선의 여학생 교육에도 투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모던걸'이라 불리던 서구의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은 체육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 맞는 몸의 실천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화학당으로 대표되는 당시 여성의 교육기관은 사회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양식 신체교육의 문화를 여성들에게 보급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의 수혜자들인 신여성으로 인해 반(反) 신체문화를 가지고 있던 조선의 기존 관습에 저항하며 여성들이 신체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움직여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다. 신여성의 새로운 경향은 여러 여성 잡지들을 통해 조선 사회로 확산되었고 교육과 사상적 측면과 더불어 몸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신체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구의 신체이자 과학적인 몸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일본의 문화정치로 인한 자본주의적 성과 육체의 서구화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면서도 일면 해방된 신체로 거듭나게 했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관통한 전통적인 의복 및 관습을 고수하는 여성들과 서양식의 의복 및 외모를 지향하던 모던걸의 혼재는 여성의 몸이 복수의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19) 20세기 초 영국에서도 비슷했다. 귀족계급에 한정되어 있던 여성체육이 YMCA나 YWCA 등의 여성 클럽 확산과 함께 다양한 종목의 보급으로 이어져 여성의 건강향상을 비롯해 여가선용으로 활용되는 민주화과정을 거쳤다. 물론 노동계급의 여성이나 결혼한 여성들의 자본과 여가시간의 부족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었다. Hargreaves, *Sporting females*, pp. 138-139.

전쟁은 북한 여성의 삶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했다. 전투를 위해 차출된 남성들을 대신하여 후방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전쟁 중의 일상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주체가 되어야 했다. 여성들은 그 동안 여성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다종의 직업군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기계공이 되어야 했고 배를 타는 선원이 되기도 했다. 사적 영역이나 농업에 국한되어 있던 여성 노동력은 중공업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노동자로 탈바꿈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는 여성 신체의 건강 측면에서 기존의 관습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했다.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해내기 위한 실질적인 신체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국가는 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쟁을 겪은 여러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례로 근대 스포츠가 태동했다고 알려진 영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여성체육을 촉진하게 된 하나의 계기라고 평가한다. 전쟁 당시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된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축구팀을 조직했고 전쟁 후에 자선경기의 성격을 띤 여자축구 경기가 본격화되어 1921년에는 무려 150여 개의 여자축구클럽이 조직되었고 이 시기 영국여자축구협회도 발족했다.²⁰⁾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가 증가하였고 이는 여성체육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1928년 제8회 올림픽 여자 800m 경기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두각을 드러낸 여성선수들이 존재했지만 여성 신체에 대한 규제가 강했던 일본의 관행으로 인해 여성체육이 대중화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전쟁 말미인 1940년 국민체력법의 제정, 1943년 여자체력장검사를 실시하여 여성의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²¹⁾

²⁰⁾ Hargreaves, *Sporting females*, pp. 141~142.

²¹⁾ 윤명희, “역사 속에서 살펴 본 여성 스포츠의 발전과 현재의 추세-고대그리스, 르네상스, 일본의 여성체육의 발달과 현재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하여-,” 『江原』

북한에서도 6.25전쟁을 앞두고 인민체력검정사업을 통해 인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인민체력검정사업은 인민의 기본 체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전문체육인을 선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기도 했다.²²⁾ 또한 전쟁이 진행중이었던 1951년에는 인민고급중학교의 체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시체육교원 단기양성소를 개소하여 남자 30명, 여자 20명의 교원들을 선발하기도 했는데 여성 교원의 비율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²³⁾ 김일성은 전쟁 시기동안 전문선수 양성에도 주의를 놓지 않았고 이때 조직된 여자배구선수단의 훈련경기를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²⁴⁾

1954년 북한의 체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지도할 기관인 내각직속 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각 도와 시 및 단위별 체육지도위원회가 함께 구성되었다.²⁵⁾ 체육정책을 상의하달 식으로 시행할 조직 개편 이후 본격적인 대중체육 및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시시각각 발표되기 시작했다. 1955년부터는 스포츠구락부를 신설하여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기지이자 체육기술을 보급하고 발전하는 거점으로 활용하였다.²⁶⁾ 인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인민체력검정은 전문 선수들을 분류하는 제도로도 활용되었다. 1956년 「스포츠선수 등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스포츠명수 칭호를 받은 선수들은 보조금과 물자 공급도 보장 받을 수 있었다.²⁷⁾ 1962년 내각결정 제57호 「체육기술수준을 급격히 제고할데 관하여」를 통해 김일성은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

大學校附設體育科學研究所論文集』, 10호 (1985), pp. 71~72.

22) 『로동신문』, 1950년 5월 6일.

23) 『로동신문』, 1951년 7월 18일.

24) 『로동신문』, 2013년 8월 5일.

25) 조남훈, 『조선체육사 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p. 126.

26)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6』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6), p. 141.

27)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p. 118.

다. 북한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 및 전술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하고 타국들과의 체육교류 협력을 확대 하는 등 체육사업으로 국가의 위신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

이처럼 전후복구시기 체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와 제도의 정비로 해당 시기 북한의 체육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사회주의 체육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위한 건강한 신체를 양성하고 직업의 영역이자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전문 선수로서의 길은 여성들에게 제도적으로 열려 있었다.

2. 사회주의 건설 시기 운동하는 여성 담론

1) 기록을 돌파하는 천리마의 상징

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 사회 전반을 재건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체육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문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는 간부 교육기관과 선수 훈련기관이 신설되었고 도시와 직장, 농촌, 학교에서 체육단이 들어섰다. 내각 일군들의 스포츠 협회를 비롯하여 교통성, 금속, 기계, 석탄 등 7개 산업별 스포츠 협회도 새롭게 조직되었다. 그 결과 1956년 말에는 전국 7,447개의 체육단과 위원회들이 조직되었고 이에 67만 6,447명의 근로자와 청년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중 여성이 23만 4,319명으로 전체의 30퍼센트가 넘는 숫자를 보일 정도로 여성들의 참여는 고무적이었다.²⁸⁾

²⁸⁾ 50년대에 발간된 『조선중앙년감』에서 확인 가능한 국내 경기에 참가한 여성의 선수 비율은 대체로 남성에 비해 30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국제적인 스포츠의 여성 참여 비율을 고려할 때 북한의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열린 영역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7』, p. 118.

전후복구 5개년 기간 동안 체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급 체육단을 비롯하여 초급 단체의 수도 증가하였다. 1961년 초급 체육단체는 908개였고 107만 505명이 소속되었으며 이 중 여성은 47만 1,266명으로 성비가 거의 일대일에 맞춰질 정도였다.²⁹⁾ 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 수의 증가는 경기기록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에서 벌어지는 각 종목의 경기에서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는 여성 선수들이 증가하였다. 1956년에 열린 민청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빙상경기대회에서 민족보위성의 고희경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트 협회부 여자 500미터와 1,500미터 활주경기에서 공화국 기록을 돌파하였다.³⁰⁾

1956년에 열린 세계배구선수권대회는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열린 국제경기에 처음 참가한 대회였다. 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남녀 배구선수 20명이 참가하였고 특히 여자 배구팀은 소련,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와 중국에 이어 7위를 기록하였다. 195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첫 출전한 북한 여자농구팀은 국제아마추어농구연맹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당시 유럽 선수권 우승팀인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6점차이로 아쉽게 패배한 북한 팀의 실력은 기대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경기를 지켜본 이들은 출전한 선수단 중에서 키가 가장 작았던 북한 선수들이 첫 출전한 국제경기였음에도 잘 운영한 경기로 평가되었고 특히 오정숙 선수는 자유투 적중률이 가장 좋아 호평을 받기도 했다.³¹⁾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일종의 고임금 정책에 기초하여 물질적 유인을 강화하여 사상적 힘을 결부시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대중운동이었다.³²⁾ 1957년 시행된 5개년 인민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29)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p. 283.

30) “전국 스키 경기 대회에서,” 『조선여성』, 2호 (1956), p. 22.

31) 『로동신문』, 1959년 10월 20일.

개인적 경쟁으로 기술 혁신 및 기록 혁신을 추구한 천리마운동과 이후 정치 도덕적 유인을 기반으로 집단적 경쟁을 추구한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북한의 생산량은 대폭 증가하였다.³³⁾ 사회주의에 적합한 인민의 의식 및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혁명과 무엇보다 생산량 증가를 위한 기술 혁명도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³⁴⁾ 전방위적인 대중운동이 벌어지면서 운동을 이끌어 갈 상징이 필요했고 집단과 개인에게 천리마영웅 호칭이 주어지기도 했다.

이 때 체육계에서 천리마운동이 추구하는 지속적인 기록 갱신의 대표적 선수는 신금단이었다. 1958년 10월 내무성체육협회 번개팀 소속으로 입단한 신금단은 1959년 4월부터 2달 동안 본인이 세운 북한의 공식기록을 9회에 걸쳐 갱신한 것도 모자라 같은 해 6월에 열린 육상경기 기록대회 200미터, 400미터, 800미터 경기에서 기록 단축의 행진을 이어갔다.³⁵⁾ 한 기사에서는 여러 전문 체육선수단이 하루에 주어진 2-3시간의 훈련 양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체육기술 발전이 더디게 나타나자, 신금단의 기록 갱신 성과를 모범 사례로 제시하여 훈련을 강화할 것을 언급할 정도로 신금단은 당시 북한 체육의 간판이었다.³⁶⁾ 신금단은 1960년 7월 모스크

32)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1), p. 174.

33) 위의 책, pp. 182, 199.

34) 위의 책, p. 191.

35) 『로동신문』, 1959년 6월 22일.

36) “기관차 체육 협회 체육단에서는 작년에 휴일과 경기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평균 2-3시간씩 배정된 실기 훈련을 86%밖에 실행하지 않았다. 결과 선수들의 기술 발전은 극히 지지한 형편에 처해있으며 지난날 수차 우승됨으로서 알려진 이 협회 룡구팀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물러 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강철, 상업성, 기타 일부 체육단들에서도 볼 수 있다. (중략) 룡상 선수 신 금단 동무가 짧은 기간에 수차에 걸쳐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400메터에 있어서는 그는 54초 4로 달리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훌륭한 기록도 육체의 전면적 발전에 중심을 두고 질주 자세의 고정으로부터 질주 방법, 속력 및 가속력의 조절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돌려 훈련을 질적, 량적으로 강화한 데 있다.

바에서 열린 즈나멘스키 형제상 쟁탈 국제 육상경기에 출전하여 800미터 경기에서 2분 4초 5를 기록함으로써 1959년 세계기록인 2분 5초를 깨트리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³⁷⁾ 이 대회는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4개국에서 이름난 육상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신금단은 1959년부터 출전하기 시작하여 매해 기록을 갱신하였다.³⁸⁾

『조선여성』에 실린 수기를 보면 신금단의 어머니인 조계월은 신금단이 “남달리 뼈마디가 늘씬늘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소작농 가정에서 체육을 시켜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 로동당과 우리 제도”를 통해 “세계 육상계의 혜성”으로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³⁹⁾ 신금단은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자신이 바라던 대로 전문 선수

그러므로 매일 교수 훈련을 6-8시간, 그중 실기 훈련을 4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제시한 이 방침을 각 스포츠 단체들에서는 충실히 실행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60년 2월 24일.

37) 『로동신문』, 1960년 7월 5일.

38) “신 금단 선수가 금년 여자 400미터 경주에서 단연 모든 나라의 선수들을 물리치고 제1위를 쟁취한 것은 오직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지난 기간 훈련 강도를 2배로 높이고 꾸준히 속도 인내력과 힘을 배양하여 온 결과인 것이다. 신 금단 선수는 작년 동기부터 긴장된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는 매일 1만 메터 조기 달리기, 100메터 조약 질주, 100메터 타보 질주, 창 던지기, 용상 등 힘에 겨운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맹훈련 과정에서 그는 많은 애로와 난관들에 부딪혔었다. 그러나 한 개 평범한 여성 로동자로부터 오늘과 같은 당의 붉은 체육전사로 자라난 그는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운 항일 빨찌산의 백절불굴의 투지를 본받아 훈련에 더욱 이악스럽게 달라붙었다. 이리하여 신 금단 선수는 지난 5월에 있는 1급 선수단 제1차 육상 기록 대회에서 400메터를 53초 2로 달림으로써 세계 기록을 깨뜨렸으며 6월에 있는 제2차 육상 기록 대회에서는 또다시 자기가 세운 세계 기록을 1초 1이나 단축함으로써 세인을 놀래우는 비상한 속도를 창조하고 400메터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로 등장하였다.” 『로동신문』, 1961년 7월 3일.

39) “공장 생활만 생각해 봐도 우리 제도가 아니라면 로동자가 체육 선수로 된다는

가 되어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도 자신의 몸은 당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몸임을 자각하고 “조국의 영예를 위하여 화선에 선 총 권 전사들 마냥” 언제나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⁴⁰⁾

1963년 1차 가네포(GANEFO)⁴¹⁾ 대회에 출전하여 세계신기록과 더불어 육상 3관왕에 오른 신금단은 연일 북한의 매체에 이름을 오르내렸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당과 수상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보답”하겠다고 결의를 실천하였고 자신의 성과는 “로동당 시대의 체육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⁴²⁾

누구나 1960년 8월 이태리에서 있었던 제17차 로마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세운 여자 800미터 경기기록 2분 04초 3과 금년 10월에 있는 18차 도쿄올림픽 경기에서 세운 기록 2분 01초 1을 비교해보면 세계 육상계의 크나큰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 400미터 종목은 18차 올림픽 경기 대회부터 첨가되었는데 그 기록은 52초 0이다.)

이제 잠깐 우리의 공훈 체육인 신금단 선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즈나멘 쓰끼 형제 상 쟁탈을 위한 국제육상경기대회 - 1960년(17차 올림픽 경기 직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공장에서 로동자들이 일하면서 체육도 하는 우리 당의 옳은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 금단이가 특별히 육상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아 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공장 체육 씨클에서 체육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문제 같은 것들을 배워 주지 않았다면 금단이는 그저 체격이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금단이를 키울때,” 『조선녀성』, 3호 (1966), p. 50.

40) 『로동신문』, 1961년 7월 5일.

41) 가네포(Games of New Emerging Force)는 “올림픽 이념과 반동정신을 결합했다”는 ‘신흥력량운동회’였다. 이 대회는 대안적 올림픽을 표방하는 새로운 국제스포츠포츠대회였지만 1963년 자카르타 가네포와 1966년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안 가네포로 막을 내렸다. 가네포는 냉전시기 대안적 지역 및 세계건설의 차원에서 벌어진 정치적 흐름과 결부하여 탄생하였고 당시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올림픽의 허울을 비판하며 ‘스포츠는 정치와 밀접하다’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스포츠 이벤트였다. 이병한, “냉전기 중국과 아시아(1)- 가네포(GANEFO)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제78권 (2012), p. 358.

42) 『로동신문』, 1963년 11월 16일.

전)에는 800미터에서 2분 04초 5, 1961년에는 400미터에서 53초 5, 1962년에는 400미터에서 53초 0, 800미터에서는 2분 01초 4, 1963년에는 400미터에서 52초 5로 달림으로써 (중략) 17차 올림픽 경기 대회로부터 18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 이르기까지 만 4년 사이에 단축한 여자 800미터 기록 3초 2도 대단한 성과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 신금단 선수는 같은 기간에 5초 5를 단축했다. 말 그대로 달리는 속도도 천리마이지만 그의 발전 속도도 천리마라고 아니 할수 없다.⁴³⁾

신금단은 “당의 붉은 체육인”이자 “영웅적 조선 로동 계급이 낳은 당의 딸”로서 조국의 이름을 높이고 북한 체육의 위력과 수준을 보여준 지표의 상징이었다.⁴⁴⁾ 인용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세계의 어느 선수도 해 내지 못한 기록 단축을 갱신하면서 그 자체가 ‘천리마’로 재현되었다. 여성의 몸, 조력자로서의 역할 혹은 여성스러운 선이나 우아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출전하는 경기마다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끈질기게 고수하는 훈련계획, 나라를 지키는 전사라는 강한 인민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신금단으로 대표되는 운동하는 여성은 강한 신체적 능력으로 국가 계획을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 몸이 되어야 했다. 여성도 집단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민대중에게 설득하기 위한 역할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43) “약진하는 천리마 조선의 체육과 스포츠,” 『천리마』, 11호 (1964), p. 7.

44) 김기수 내각체육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축하연설 중에 신금단은 청년들의 훌륭한 모범이며 커다란 자랑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체육인들의 성과를 치하했다. “우리 나라 전체 체육인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웅적인 체육 활동을 통하여 조국의 영예를 전 세계에 빛내였으며 우리 당 체육 정책의 정당성을 과시한 영웅적 조선 로동 계급이 낳은 당의 딸 신금단 선수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우리 나라 체육인들은 체육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따라 세우며 앞세울 데 대한 당적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있으며 육상, 축구, 체조, 사격, 빙상, 자전거, 권투, 레슬링, 탁구, 통신, 모형 항공 등 일련의 종목들에서 이미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로동신문』, 1962년 7월 5일.

2) ‘공화국의 발전하는 여성’의 표본

인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는 여성들이 전문적인 체육을 배우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었고 여성 전문체육인의 배출은 새로운 사회를 반영하는 상징이었다. 1956년 세계배구선수권대회에서 승리에 기여한 김춘영 선수는 외국에서도 “발전성 있는 운동가”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⁴⁵⁾ 북한 여자배구팀의 경기는 “우리 나라 근로 녀성들의 체육 문화 발전 모습을 국제적으로 널리 시위”한 북한 체육사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첫 출전한 국제 경기에서 활약을 한 북한 배구팀은 북한 “체육계의 위신을 보다 제고”시켰으며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명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심”을 북돋아주었다고 평가하였다.⁴⁶⁾

앞서 보았던 민청 창립 10주년 기념 빙상경기대회에서 공화국 기록을 세운 고경희 선수의 어머니인 김영선이 평양시 선수로서 해당 대회에 동반 참가하여 ‘모녀 선수’로 주목을 받았다.⁴⁷⁾ 이 외에도 학생 시절 도 대표로 8.15 해방 경축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육상 선수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이후에도 공화국 신기록을 세우는 일이 화제가 되었다.⁴⁸⁾ 이러한 사례는 여성이 체육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라 믿어왔던 결혼과 출산, 노화 등의 조건들이 사실은 여성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장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의 역할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몸, 생물학적으로 격한 운동을 하기에 약한 여성의 몸이라는 편견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단편들이었다.

〈그림 2〉는 『조선녀성』에 실린 다양한 북한 여성들의 이미지를 보여

45) 『로동신문』, 1956년 9월 20일.

46) 『로동신문』, 1956년 10월 2일.

47) “전국 스키 경기 대회에서,” 『조선녀성』, 2호 (1956), p. 22.

48) “우리의 자랑,” 『조선녀성』, 3호 (1956), p. 8.

준다. 대부분의 삽화에서는 전통옷을 입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장 노동자와 체육선수들처럼 그들의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의복을 입은 여성들이 게재되기도 한다. 공구를 들고 기계를 다루는 여성노동자, 작업 전 담배를 피우는 여성,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메달을 목에 건 여성 등 여성의 이미지는 동일한 집단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여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회임을 적극 담론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운동하는 여성들은 이에 주축이 되었다.

〈그림 2〉 1950-60년대 북한 여성들의 다양한 이미지



출처: “가네포의 꽃들,” 『조선녀성』, 3호 (1964), p. 53(왼쪽); 『조선녀성』, 4호 (1957) 뒷 표지(가운데); “몸 단장과 화장,” 『조선녀성』, 6호 (1964), p. 55(오른쪽).

1957년 『조선녀성』 제3호에는 “공화국의 발전하는 녀성들”로 스포츠 명수 김춘영과 금속기사 리옥련, 평양방직공장의 황순복과 리춘심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들은 기술일군 양성을 위한 야간기술전문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임금도 똑 같이 타며” 김책 공대 금속 공학부에 들어가 여자의 비율이 낮은 중금속 분야에서 “진정한 남녀 평등권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었다.⁴⁹⁾ 이런 여성

49) “발전하는 공화국 녀성들,” 『조선녀성』, 3호 (1957), p. 8.

노동자들과 함께 소개된 김춘영은 해방 이후 사범대학 체육학부에서 공부를 하여 “새 사회의 체육인이 가져야 할 품모와 기량이나 리론”을 갖추었고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출전하여 원판과 포환, 창던지기 경기에서 우승한 경력이 소개되었다. 김춘영은 전쟁 시기 조선 인민군 체육지도원 중앙강습소로 입대하여 민족보위성 내 여자배구팀 주장이 되어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고 여성으로서 첫 체육 명수 칭호를 받았다.⁵⁰⁾

한필화는 1963년 스피드스케이트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당시 세계신기록을 보유한 소련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했는데 심지어 대회 기록을 0.7초 앞당긴 대회 신기록이었다.⁵¹⁾ 이후 북한이 첫 출전한 1964년 인스부르크 동계 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 최초의 은메달을 획득하여 신금단과 1966년 세계축구선수권대회 8강의 주역인 신영규 등과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⁵²⁾ 한필화와 함께 북한 빙상종목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선수는 1966년 스피드스케이트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한 김송순이다. 1958년 2.8체육선수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김송순은 일제강점기 하 가난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해방 이후 어부 아버지를 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스피드스케이트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 1963년 첫 출전

50) 위의 글, p. 9.

51) 『로동신문』, 1963년 2월 23일.

52) “세계 신기록을 수차례나 갱신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등장한 신금단 선수를 비롯한 룡상 선수 대렬, 《동양의 조선 선수들이 오랜 기간 속도 비상계의 패권자로 공인되어 온 쏘련 선수들의 강한 경쟁자로 등장한 것은 아주 훌륭하고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경탄을 자아내게 한 공훈 체육인 한 필화 동무를 비롯한 빙상 선수 대렬, 《철벽의 방어수》 공훈 체육인 신영규를 포함한 축구 선수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눈부신 활약, 56키로 그람급 용상에서 《세계 강자》로 알려진 세계 신기록의 수립자 력기 선수 리홍천 공훈 체육인 (중략).” 『로동신문』, 1964년 10월 11일.

을 시작으로 겨우 4번째 참가 만에 한필화와 김송순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우승까지 하게 된 것은 북한의 “녀성 속도 빙상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다.⁵³⁾

당시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는 1,091명으로 그 중 여자 선수는 199명에 불과했다. 서구 국가에서도 여성이 전문체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동계올림픽 여자선수 비율로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 여성선수의 올림픽 은메달 획득은 첫 올림픽 참가에서 북한의 발전상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체육계에 만연한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해방된 여성이라는 상징을 더하기에도 충분해 보였다. 이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이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도 여성이 체육을 함으로 인해 해방된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여성의 다양한 모습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도 적합했다.⁵⁴⁾

당시 『조선녀성』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강좌 교수인 리기덕이 해방 전 자신의 스케이트 경험을 소개하는 일화를 실었다. 일제강점기 운동하는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동네 대장간에서 남자아이들 용으로 만들던 “칼빙거”라는 스케이트를 12살 때부터 몸 단련을 위해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내애래두 모르겠는데 계집애가 칼빙거를 타?! 말괄량이로군! 순전히 남자 같다니까” 라는 말을 듣거나 집에 와서는 몹쓸 짓을 하고 다닌 것 마냥 꾸짖음을 당했다

53) 『로동신문』, 1966년 2월 7일.

54) “오늘 우리나라에서 체육 사업은 전체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희망대로 체육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3년 전 까지만 하여도 한 개 평범한 녀성 로동자였던 신 금단 선수가 오늘과 같이 인민들의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세계에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당의 올바른 체육 정책의 결과이다.” 『로동신문』, 1961년 7월 5일.

고 회고했다.⁵⁵⁾ 리기덕은 당시 일본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1937년 서울에서 열린 전국여자빙상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리기덕이 함경남도 예선에서 1등을 하여 전국 경기에 나가게 되자 함남체육협회에서 함경남도의 전국경기 출전을 보류하였다. 이전 해에 이화여전의 송인실이 전국여자빙상경기대회에서 1등을 하여 일본이 조선 선수들의 출전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협회도 이들의 눈치를 본 것이었다. 그러나 리기덕은 당시 대회를 주최한 동아일보사에 개별적으로 참가신청을 했고 모든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여 대회에 출전했다. 그리고 500미터와 3,000미터 경기에서 우승했다. 리기덕은 조선인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 우승한 당시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러고 보면 내 젊은 시절이 더욱 가슴 저리다. 어릴 때는 봉건적 인습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던 내, 《칼방거》타기가 학교 별 스케트 경기에 여자 종목이 생기던 1930년대에 와서는 나라가 없는 탓에 또 더 큰 수모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략) 내가 더 부러운 것은 그들의 가슴에 붙인 《조선》이라는 두 글자와 그들이 하늘 높이 올렸던 공화국 기발이며,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감격에 목메여 심장으로 함께 부른 그 《애국가》인 것이다.⁵⁶⁾

여성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가진 신체적 소질을 계발할 기회와 지지를 얻지 못했던 식민지 주권의 상실은 성별의 편견을 넘어선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굴레로 작용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다층의 차별을 경험한 여성 체육인의 처지가 새로운 사회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인용문에서 읽어낼 수 있다. 신체적 재능을 가진 여성이 평등한 제도의 보장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전문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상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나 다름없었다. 일반적인 시

55) “김 송순, 한 필화 부럽다 그들이,” 『조선녀성』, 4호 (1966), p. 45.

56) 위의 글, p. 46.

민이 남성이라는 보편적 주체로 그려지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여성들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개별 능력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발전상을 전시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졌다. 운동하는 여성들은 매체를 통해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상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여성 이미지와는 상반된 강한 신체의 운동하는 여성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경기현장의 외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흔재하기도 했다. 가네포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을 묘사하는 한 기사에는 “어느 대표단에서도 볼 수 없던 아름다운 민족 의상으로 단장한 녀성”들이 입장하며 인사하는 순간 “경기장 안이 한결 밝아지고 흡사 화원에 봄이 찾아 든것만 같았다”고 적었다.⁵⁷⁾ 여성을 ‘꽃’이라는 대상화된 존재이자 미소를 띤 얼굴로 남성권력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재현전략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담론은 그들 신체의 긍정성을 국가적으로 고취하면서도 전통적 여성의 이미지 역시 부정하지 않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IV. 맺음말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몸은 노동력이자 국방력으로서 건강한 몸과 직결되었을 뿐 섹슈얼리티와는 거리가 있었다. 1920-30년대의 자본주의적 근대 속성과 결합하여 소비의 주체로 만들어졌던 여성의 타락한 몸 담론은 사회주의 북한이 배척하는 자본주의 퇴폐성과도 연결되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에서의 체육활동이 일부 특권계층의 놀이문화로 치부되어 인

57) “가네포의 꽃들,” 『조선녀성』, 3호 (1964), p. 52.

민대중 누구나 즐기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대중체육이 중시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운동을 하는 여성은 다른 성격을 띠어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민의 몸을 만들기 위한 대중체육과 성별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학교 및 직장체육으로 여성들의 체육 참여 기회가 늘어났다.

1950-60년대는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었다. 해방 이후 '선진소련'을 보고 배우자는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회 여러 제도에 소련의 색채가 묻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것은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였다.⁵⁸⁾ 북한의 각종 출판물은 소련 여성들의 육상과 자전거, 수영 등의 체육활동 참여를 소개하면서 제정러시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여성 체육가들의 등장을 “쏘베트 10월혁명의 직후부터 정부가 인민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육운동의 발전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평가했다.⁵⁹⁾ 또한 1952년 소련의 올림픽 결과는 북한의 여성체육이 적극 장려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중장거리 육상과 스피드스케이팅, 배구, 농구에서 활약한 여성 선수들은 초과계획을 달성하여 경제계획을 앞당기는 천리마 노동자이자 전쟁을 호도하는 미국 제국주의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당과 수령의 붉은 전사로 북한 사회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모범적 인민이 되었다.⁶⁰⁾ 여성선

58) 북한의 건국 초기 소련 인민들이 누리는 일상을 소개하여 소련과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포하는 것에 노력하면서 조소문화협회는 소련을 따라 배우기 위한 각종 전람회를 열었다. 1947년 1년 동안 소련의 교육, 지도자, 각종 산업, 예술 분야를 소개하는 전시회에 체육도 빠지지 않았고 작품의 수도 다른 분야의 전시회에 비해 적지 않았다. 류기현,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 1945~1948년 朝蘇文化協會의 조직과 활동,” 『大東文化研究』, 제98집 (2017), p. 111.

59) 『로동신문』, 1949년 7월 19일.

60)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자부심과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이 “수령의 붉은 전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사상적 준비라고 보았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수들이 해방된 조국의 국호를 가슴에 달고 국제경기에 출전하여 메달을 땀을 때 시상식에 나가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선수로서의 가장 큰 영예였다. 그러나 선수의 우수한 경기력은 개인의 우수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제도에 의해 발견되고 숙련될 수 있었던 제도의 산물로 포장했다. 해방 이전에는 여성의 신분으로 체육을 하거나 대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제도와 싸워야 하는 일이었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주권을 가진 국가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능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의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천리마운동에 적극 동원되었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 노동자가 되도록 장려되었다. 남성들과 동등하게 학습하고 노동하는 여성은 공화국의 발전하는 여성의 모범사례로 자주 등장하였으며 공적영역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은 혁명화 된 존재들이었다. 여성 전문체육인들의 성과 역시 경제 계획을 준수하고 초과 달성하는 모범 노동자와 동일하게 그려졌다. 이 시기 여성 선수들에게는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위훈을 세우는 여성해방의 이념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났고 이는 운동하는 여성을 둘러싼 지배적 담론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관습적인 시각이 혼재했다. 모든 여성이 단일한 생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인식의 변화 속도가 제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 관습에 얽매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새로운 사회적 질서 속에서 남성과 동일한 종목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운동하는 여성의 등

것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다,” 『근로자』, 4호 (1969), p. 27.

장은 여성은 남성에 의해 타자화 된 동일한 집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1950-60년대 역동적인 북한 사회 내부에서 강한 신체를 토대로 개별 능력을 계발하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운동하는 여성들은 북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모델로 등장했다. 국가의 우수성을 세계를 향해 선전하고 남성들도 하지 못한 경기수행력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 여성들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매체에서 재현되는 운동하는 여성들의 강한 신체가 '여성답지 못한' 혹은 '남성적인' 신체로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맥락 속에서 섹슈얼한 여성의 몸 대신 집단을 위한 튼튼한 몸의 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북한의 운동하는 여성들 역시 모두가 전통적 질서에 도전하고 저항의 사고를 가진 동일한 집단은 아닐지라도 모스의 언급대로 운동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여성이 수동적이고 정숙해야 한다는 사고 자체를 부인하는 실천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⁶¹⁾

■ 접수: 2019년 10월 29일 / 심사: 2019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9년 11월 27일

⁶¹⁾ Margaret Morse, "Artemis Aging: Exercise and the Female Body on Video," *Discourse*, vol. 10 no. 1 (Fall-Winter 1987-88), p. 24.

【참고문헌】

- 권기남 · 권순용. “여자축구선수들의 성 정체성 갈등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3호 (2012), pp. 39~51.
- 김주희 · 김종규. “시선과 몸짓: 한국 개화기 문화변화에 따른 혼종화된 몸 담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22권 4호 (2014), pp. 133~149.
- 박성희 외. “여성스포츠 선수에 대한 미디어 보도 프레임: 성 역할 고정관념과 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3호 (2015), pp. 385~394.
- 류기현.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 1945~1948년 朝蘇文化協會의 조직과 활동.” 『大東文化研究』, 제98집 (2017), pp. 91~118.
- 윤명희. “역사 속에서 살펴 본 여성 스포츠의 발전과 현재의 추세-고대그리스, 르네상스, 일본의 여성체육의 발달과 현재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하여.” 『江原大學校附設體育科學研究所論文集』, 10호 (1985), pp. 69~75.
- 이규일 · 임영신. “남성 지배적 스포츠 문화 속에서 여자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갈등.”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5권 1호 (2011), pp. 29~43.
- 이병한. “냉전기 중국과 아시아(1)- 가네포(GANEFO)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제78권 (2012), pp. 355~403.
- 이원미 · 이종영. “여성 운동선수의 성역할 갈등이 객체화된 신체의식 및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1권 1호 (2013), pp. 125~136.
- 이정래 · 권기남. “여성 보디빌딩 현장의 변화와 선수의 정체성 지키기.”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9권 1호 (2015), pp. 79~90.
- 이정우. “북한 출판미디어의 여성 권투선수 보도에 내포된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2권 1호 (2009), pp. 1~20.
-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1.
- 조남훈. 『조선체육사 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 황성하. “여자축구 선수의 성 역할 갈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5권 1호 (2016), pp. 61~73.
- Hall, M. Ann. 이혜숙 · 황의룡 역. 『페미니즘 그리고 스포츠신체』.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 Hargreaves, Jennifer. *Sporting females: Critical issues in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 women's sports*. London: Routledge, 1994.
- Nelson, Mariah Burton. "Introduction: Who We Might Become." in Smith, Lissa. *Nike Is a Goddess: The History of Women in Sports*.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88.
- Oattes-Indruchová, Libora. "The Ideology of the Genderless Sporting Body: Reflections on the Czech State-Socialist Concept of Physical Culture." Naomi Segal, Roger Cook, and Lib Taylor. *Indeterminate Bod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3.
- Kissling, Elizabeth Arveda. "When Being Female Isn't Feminine: Uta Pippig and the Menstrual Communication Taboo in Sports Journalism." *Sociology of Sport Journal*, vol. 16 iss. 2 (1999), pp. 79-91.
- Morse, Margaret. "Artemis Aging: Exercise and the Female Body on Video." *Discourse*, vol. 10 no. 1 (Fall-Winter 1987-88), pp. 20-53
- Riordan, Jim. "The Rise, Fall and Rebirth of Sporting Women in Russia and the USSR." *Journal of Sport History*, Vol. 18, No. 1 (Spring, 1991), pp. 183-199.
- 수잔 보르도. 조애리 윽김.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 케티 콘보이 외. 고경하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 Young, Iris Marion. "Throwing Like a Girl: A Phenomenology of Feminine Body Comportment, Motility and Spatiality," *Human Studies*, Vol. 3 (1980), pp. 137-156.

『근로자』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조선여성』

『천리마』

"1952 Olympics, the women's history," May 21, 2016, *On Her Mark Collectibles blog*: <https://www.onhermark.com/single-post/2016/05/20/1952-Olympics-the-womens-history>.

"What Happened in 1952 Important News and Events, Key Technology and Popular Culture," *The People History*: <http://www.thepeoplehistory.com/1952.html>.

The Emergence and Meaning of Sporting women in North Korea : Focus on North Korean Female Elite Sports in 1950s-60s

Lee, Nayeo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bstract

Modern sports which is a male-dominated activity, has allowed women to be positioned as peripheral in sports activities. In addition, as capitalist sports become commercialized and the combination of media and sports accelerates commercialization, there is a clear tendency to strengthen the gender order system in the sports arena.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ception of sporting women in the socialist North Korea, questioning whether they have not been marginalized and then, it will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sporting women's emergence in the 1950s and 60s and their discourse on them.

The main goal of socialist sports was to enhance labor productivity and build up national defense by improving the people's physique, which was an important theoretical basis for encouraging the sports activities of socialist wome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North Korea has also introduced the Soviet Union's sports policy to encourage sports activities to create a body for individual hygiene, health and groupings, regardless of gender. Sporting women began to emerge through the provi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sports activities conducted by works and schools. In the

1950s and 1960s, women who exercise in the North developed their individual abilities based on strong bodies became new role models for women in the North Korea. The discourse on sporting women was symbols of the Cheollima Movement and a sample of the “developing woman in republic”. This study have confirmed that the strong bodies of sporting women recreated in the North Korean media do not emerge as “unfeminine” or “male” bodies, but reflect the strong body pursuit for groups instead of those of sexier women in the context of socialism.

Keywords: sporting women, North Korean sports, North Korean women’s sports, elite sports, socialist sports

이나영(Lee, Nayeong)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2019년 2월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겸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출판기획사 힐테와소피의 공동대표이다. 연구관심사는 북한 사회의 젠더와 체육 분야이다. 주요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인 “북한의 여성체육 담론 연구(1945-2011): 여성 전문체육의 형성과 중심으로”와 “북한 체육의 사회주의적 특성과 여성체육의 발전”이 있다.